전국 청년 세대들이 본 5월은 어떨까

5·18기념재단, 5·18기획 전시 '길 위에서' 4일~6월 8일까지 '산수싸리' 기획…5명 초대 안성석·윤태준·정한결 등 참여

윤지영 작 '달을 보듯이 보기'

'청년 세대들이 바라보는 5월은 어떨까.'

청년큐레이터가 기획하고, 전국의 청년작가들이 참여한 오월전이 열린다.

5·18기념재단(이사장 정동년)은 4일부터 6월 8일까지 5·18기념문화센터 B1 전시실에서 5·18 기획전시를 개최한다.

'길 위에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산수싸리'의 김민지·김한라 큐레이터가 기획했다. 두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역사를 경험하는 세대의 비율이 낮아지면서 결국 비경험 세대의 몫으로 남겨질 역사에 대해 예술가는 어떤 발언을 할 수 있는 지 고민을 담아 전시를 기획했다.

또 하나, 지역 간 경계에 대한 감각이 희미한 요즘 세대들에게서 5월이 광주 지역민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을 넘어서는 다양한 시선의 이야기와 작업을 끌어내고 싶어 서울, 광주, 경산 지역 작가 5명을 초대했다.

안성석 작가는 민주주의의 상징적 장소인 '광장'의 개념이 아직도 유효한가에 대한 의문을 담은 포토 몽타주와 단채널 영상 작품을 선보인다. 작가는 지금의 세대 혹은 미래의 세대에게 광장은 어떤 의미인지 묻고, 미래 세대에도 광장의 민주주의가 공감의 영역이 형성되는 장소로 올바르게 기능할 것인지 질문을 던진다.

윤지영 작가의 '달을 보듯이 보기'는 작가의 신체와 조력자의 행위, 타이밍에 작가의 안전을 맡기는 퍼포먼스 영상이며 '구의 전개도는 없다'는 역사적 사건에 직접 관여하지 못한 비 경험세대가 그럼에도 갖는 믿음, 지식의 근거들에 대해 묻는 작품이다.

윤태준 작가는 꽃, 불, 열매, 손 등 특정 대상을 사진과 3D로 보여주며 5월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특히 행방불명자에 대한 기억과 추모의 방식을 자신만의 고유한 방식을 통해 재현해냈다.

이은영 작가는 학창 시절 학습하고 전해들었던 이야기, 성인이 돼 방문한 광주에서 경험하게 된 현재 광주의 모습, 경험세대의 증언록을 읽으며 알게 된 것을 바탕으로 사라지고 잊혀진 것들에 대한 의문을 던지며 이를 재현해낸다.

정한결은 광주 곳곳에 산재한 5·18 흔적을 찾아 광주의 사적지와 기념물 이미지들, 증언과 기록 텍스트 등이 가공된 작업을 통해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다. 개막식은 오는 12일 오후 5시 열린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장르 매이지 않는 다채로운 모습 보여줄 것"

'미스터 트롯' 출신 가수 임영웅 자신 이름 건 첫 음반 '아임 히어로'

"한 장르에만 국한된 가수가 아니라 다채로운 장르를 어색함 없이 보여드릴 수 있으면 합니다. 저의 노래로 대중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미스터 트롯' 출신 가수 임영웅이 데뷔 6년 만에 자신의 이름을 건 첫 정규 음반을 내놓는다. 그동안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이제 나만 믿어요', '사랑은 늘 도망가' 등으로 국내 음원 차트 최상위권을 차지해 온 그가 이번에 들려주는 음악 이야기는 '아임 히어로'(IM HERO)다.

임영웅은 2일 온라인으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저뿐 아니라 팬들도 정말 오래 기다린 음반이다. 정규 음반은 처음이라 열심히 준비했고 다채로운 곡을 담으려 노력을 많이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랜 준비 끝에 공개한 정규 음반은 사람과 사랑, 세상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냈다. 임영웅은 "데뷔 후 첫 정규 음반인 만큼 열심히, 그리고 잘 만들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다"며 "다 만들었다가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상황도 많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오로지 음반에만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 지냈던 것 같다. 모든 게 그러하듯 완벽한 만족은 없지만, 최선을 다했기에 '그래도 좀 만족스럽다'는 이야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다"며 살짝 웃었다.

이번 음반의 타이틀곡 '다시 만날 수 있을까'는 애절한 감성이 돋보이는 발라드곡이다. 이 곡은 가수 이적이 작사·작곡에 참여하고 정재일이 스트링 편곡한 사실이 알려져 주목받았다. 이적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임영웅의 정규 음반 발매 소식을 직접 '홍보'하기도 했다.

임영웅은 "처음 보내주신 노래를 들었을 때 그 여운이 오래 갔던 것 같다. 이후 정재일 선배께서 스트링 편곡까지 해주셨는데 감동이 더 깊어졌다"며 "잘 부르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다"고 말했다.

프랑스 파리에서 찍었다는 뮤직비디오는 3일 오전 8시에 공개할 예정이다. 음반에 실린 다른 수록곡 '라인업'도 쟁쟁하다. '사랑해요 그대를'은 트로트계 '대 선배' 설운도가 작사·작곡했고 '연애 편지'는 자전거 탄 풍경의 송봉주가 곡을 작업했다. 이 밖에 박상철, 딕펑스 김현우, 윤명선 등이 음반 작업에 참여했다. 이 밖에도 '우리들의 블루스', '보금자리', '아비앙또'(A bientot) 등 총 12곡이 음반에 실렸다.

임영웅은 타이틀곡 외에 좋아하는 곡으로 '사랑해 진짜'를 꼽으며 "지난해 KBS 단독 쇼에서 먼저 선보였던 노래인데 달달한 가사와 말랑말랑한 멜로디가 언제 들어도 러블리(사랑스러운)한 노래"라고 소개했다.

가요계 안팎에서는 '음원 강자'인 임영웅이 이번 음반으로 새 기록을 달성할지 주목하고 있다.

임영웅은 그동안 디지털 싱글은 여러 장 발매했지만, 실물 음반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영웅시대'(팬덤명)의 탄탄한 팬덤을 고려하면 이번 음반으로 10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릴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임영웅은 수년째 팬덤을 유지하는 비결과 관련해 "부족한 저에게 늘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는 팬 여러분들 덕분에 이 자리에 있다"며 '임영웅의 영웅은 누구냐'는 질문에 "영웅시대 가족들"이라고 답하며 엄지 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임영웅은 음반 발매에 맞춰 오는 6일부터 전국을 돌며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그는 "지금은 '가수 임영웅'으로 전국 투어 콘서트에 집중하면서 팬 여러분들을 가까이에서 보고 함께 소통하고 싶다"며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뒤 가장 하고 싶은 일로 "전국 투어에서 팬들과 함께 마음껏 웃고 소리 지르고 '떼창'(함께 노래 부르기)하고 가까이에 뵙는 게 소원"이라며 힘줘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GMAP에서 열리고 있는 '디지털 공명'전.

시민들, 미디어 아트 더 쉽게 만난다

지맵, 초등학생 대상 '미디어 아트 나들이'…도슨트 해설도

지난 3월 문을 연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GMAP(지맵·Gwangju Media Art Platform)이 시민들이 좀 더 쉽게 미디어 아트와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은 개관 기념전으로 열리고 있는 '디지털 공명'전과 연계해 열린다. 메타버스 시대를 주도할 미래 예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둔 '디지털 공명'전은 AI(인공지능), VR(가상현실), 로봇, 인터랙티브 아트, 오디오-비주얼 퍼포먼스 등 몰입과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작품들로 구성돼 있다.

지난달 26일 송학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11월(매주 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미디어 아트 나들이'는 지역기관과의 협업으로 준비한 초등학교 대상 프로그램이다.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이 마련한 '문화체험 나들이'의 일환으로, 광주 소재 11개교의 초등학생들이 참여한다.

GMAP은 광주문화재단,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과의 협업 과정을 거쳐 빛고을시민문화관의 5G미디어 콘텐츠, 홀로그램 전용관 등의 미디어아트 체험을 비롯해 GMAP의 개관전시를 전시장별 도슨트의 설명과 함께 관람하고 체험하는 행사를 마련했다.

도슨트와 함께 하는 단체 관람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정기 작품 설명회와 사전 예약 작품 설명회로 나누어 진행한다. 그밖에 광주 박물관·미술관 관계자 및 지역 미디어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개관전 전시기획자인 이승아씨 초청 설명회도 열렸었다.

개관전 '디지털 공명'의 1, 2, 4 전시실의 주제전은 6월 29일까지, 3전시실의 주제전은 내년 3월 29일까지 개최된다. 무료 관람. 월요일 휴관. 문의 062-613-6123.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낭독극 '양림' 배우 공모

광주시립극단, 15일까지

지난해 열린 '양림' 낭독극.

광주시립극단이 낭독극 '양림(楊林)'에 참여할 배우를 공개 모집한다.

낭독극 '양림'은 2020 제1회 창작희곡 공모전 당선작으로 광주 양림동ㅇ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다. 작가적 상상력과 탄탄한 서사가 만나 광주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굵직한 드라마로 주목받은 작품이다.

접수 기간은 15일까지며,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gjdrama@han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

오디션은 17일 광주시립극단 연습실에서 실시한다. 필수과목은 지정연기, 자유연기, 개인특기이다. 합격자는 20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누리집을 통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응시원서 및 자세한 사항은 광주문화예술회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낭독극 '양림'은 오는 6월 25일 오후 3시와 7시 유스퀘어 동산아트홀에서 공연한다. 문의 062-511-2759.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소녀시대 효연, 첫 솔로 미니음반 '휩' 16일 발표

소녀시대 효연이 첫 솔로 미니음반으로 찾아온다.

2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효연은 이달 16일 오후 6시 각 온라인 음악 사이트를 통해 첫 번째 미니음반 '휩'(DEEP)을 발표한다.

이번 음반은 효연이 솔로로 처음 선보이는 미니음반으로, 타이틀곡 '휩'을 비롯한 신곡과 기존 발표곡 등 다양한 매력을 담은 일렉트로닉 장르의 7곡이 수록될 예정이다.

효연은 2007년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로 데뷔해 서브 보컬과 메인 댄서로 활동해왔다.

이후 '미스터리'(Mystery), '워너비'(Wannabe) 등을 발표하며 솔로 가수로서도 역량을 보였으며 'DJ 효'(DJ HYO)라는 이름으로 DJ 활동을 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즐거운 문화 산책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
2관	서울괴담
3관	공기살인, 서울괴담, 봄날
4관	공기살인, 봄날
5관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6관	앵커
9관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7관 씨네커플	서울괴담, 앵커, 쿠폰의 여왕, 더 컨트랙터
8관 씨네커플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 로스트 시티, 봄날, 달빛 그림자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광주시립교향악단 제363회 정기연주회
광주의 영웅들에게
일시 : 2022.05.17.(화)
장소 : 빛고을시민문화관
문의 : 062-524-5086

광주시립교향악단 어린이날 특별음악회
라바와 함께하는 키즈클래식
일시 : 2022.05.05.(목)~07.(토)
장소 : 광주 북구문화센터
문의 : 062-524-5086